방향 하나 다를 뿐인 너무 큰 차이

(역대하 21:1~20)

1.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댜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3.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4.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5.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삼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리니라
6.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방향 하나 다를 뿐인 너무 큰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방향 하나 다를 뿐인 너무 큰 차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많이 닮았습니까? 닮지 않았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한 눈에 보기에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는 아들이 둘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의 예쁜 점만 골라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이 그렇게 닮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 아이들은 엄마를 닮았어야 하는데 아빠를 닮은 바람에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한편 '아빠 닮은 딸이 잘 산다'는 말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별 소릴 다 합니다.
속담에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을 낳느냐?'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의 신앙적 모범으로 삼아도 좋을 왕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서 적군들을 향해서 대열을 갖추고 나갈 때에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

게 하였던 그 장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되새김질 해야만 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제가 되새김질 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풍랑만난 배 위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 장면이 그러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행동도 길이길이 우리 신앙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줄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일곱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서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여섯 아들들에게는 많은 재물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아버지와 비교할 때 너무나 악했고 왕으로서도 참담한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오늘 말씀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적군을 향하는 모습이 곧 십자가 생활화로 무장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가 여호사밧 왕이고, 반대로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자의 삶을 여호람 왕으로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그 대비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호람은 왕이 된 뒤에 자기보다 착한 여섯 아우를 모두 죽입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 여호람에게 경고를 하며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라고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 왕국 출신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북 왕국과 똑같은 우상숭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온 나라 안에 대대적으로 자행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도 여호사밧 왕 때에는 주변나라들이 두려워하면서 조공을 바쳤는데 속국이었던 에돔과 립나가 독립을 하게 되자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겨우 포위망을 뚫고 목숨만을 건진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공을 받아서 왕궁의 모든 재물이 약탈을 당하고 여호람의 막내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아내도 다 잃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죽자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분향이나 조문조차도 하지 않았고 다윗 왕조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의 삶을 의도적으로 대비하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6절의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라는 말씀을 통해 그 차이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온 나라에 퍼지도록 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마음에서 돈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마음에서 수적인 부흥을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쥐기 위해 택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의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야누스처럼 두 개의 얼굴

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몸의 얼굴과 마음의 얼굴이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하느냐 순방향 포지셔닝을 취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 왕이 북 왕국 출신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권장하고 강요한 것은 곧 순항뱡의 포지셔닝입니다. 몸이 돈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 마음까지도 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의 차이점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성가대를 앞세웠던 것은 역방향 포지셔닝을 위함이었습니다. 몸은 적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은 적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적군을 바라볼 때에는 두려워하거나 전의를 불태우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찬양과 감사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마음이 인자하심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주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는 인자하심만을 보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몸의 얼굴이 있고 마음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두 얼굴은 역방향이나 순방향의 포지셔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 방향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의 삶은 천국과 지옥만큼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자인 에스라는 이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정의해봅니다. 인간은 몸이 세상을 향할 때에 마음으로는 역방향을 취하고 하나님을 보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로부터 모든 소유물이나 가족까지도 세상입니다. 이렇게 몸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에 마음은 역방향을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순방향을 취한다면 몸이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 나의 뜻과 욕구가 발사될 것이고, 역방향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누스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으로서 얼굴 두 개가 역방향으로 붙은 문의 수호신입니다. 그 야누스에서 나온 단어가 1월을 뜻하는 January입니다. 즉 문의 신은 모든 사물과 계절의 시작을 주관하는 신인 것입니다.
야누스는 신화의 인물이지만 인간은 이처럼 스스로 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가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몸은 직장에서 상사들을 대하고 업무를 대하며 거래처 직원도 대합니다. 그 현장에서 마음은 역방향을 취해야만 하고 바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역방향을 취하고 있을 때에 나는 문이 되는데 이 문은 하늘을 땅에 내려오게 하는 문입니다.
내게 가족을 주신 것은 가족과 더불어 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맡기시며 주신 사명은 가족에 대해서 역방향을 취함으로서 하늘이 흘러들어오는 문이 되고 하

늘의 시작점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업을 크게 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선교사나 목사로 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면 목회를 잘 하기 위해 날마다 부흥을 바라보며 금식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에 역방향을 취함으로서 하늘의 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에 마음은 몸이 만나는 대상에 등을 돌림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 생활화는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처럼 순방향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은 십자가를 바라봄과 동일시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하였으나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타고난 죄적체질로 인해 몸이 향하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는 순방향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몸을 따라 순방향으로 포지셔닝 될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림으로서 몸을 따라가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한 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순방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원죄적 체질을 가진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 함을 뜻합니다.
원죄가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은 몸을 따라서 순방향을 취하려 합니다. 몸이 돈을 앞에 두었을 때에는 마음도 돈을 향합니다. 몸이 가족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마음도 가족을 향합니다. 몸이 나라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마음도 나라를 향합니다. 이럴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방향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기도해야합니다. 또한 죽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여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편 보좌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주님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게 해주시고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와 교제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버지를 나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님이 찬양하는 아버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로 만족하실 때에 나도 아버지로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주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돈을 생각하고 붙드는 것은 돈으로 만족하려고 함입니다. 애인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애인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함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듦으로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육체와 순방향을 취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른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고 바알 숭배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몸이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 마음이 순방향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알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라고 하고 이러한 자들을 다음 절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몸이 마주 대하고 있는 땅의 일들을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역방향이냐 순방향이냐를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곧 몸을 따라가려는 마음의 순방향 포지셔닝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몸과 역방향을 취하게 되면 몸이 만나는 대상들은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는 과녁이 되고, 나 자신은 하늘의 뜻이 내려오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 방향 하나를 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여호람 왕의 삶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람 왕의 모든 잘못은 방향 하나를 정하지 못함으로 생겨났습니다.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몸이 대하고 있는 돈과 가족과 나라의 부흥을 바라보자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렸던 은총적 삶과는 반대의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다 끝이 납니다.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왕실 묘에 묻히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를 조문하는 자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표적인 예로서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을 대비시킴으로서 방향 정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얼굴과 마음의 얼굴이 순방향 포지셔닝이 되느냐 역방향 포지셔닝이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순방향 포지셔닝이 중단되게 하시고,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함으로서 하늘이 내려와 땅으로 흘러가는 문이 되어 오늘도 가는 곳마다 몸이 만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적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